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절 남북교역 및 투자

제2절 남북간 운송체계

제3절 개성공단사업

제4절 남북관광협력

제5절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제6절 기타 남북교류협력

제3장

남북교류협력

2008년에는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당국간 교류협력이 답보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남북 교역액은 18억 2,037만 달러로 2007년도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남북간 왕래인원 역시 전년도 대비 17.3% 증가한 18만 6,775명을 기록하였다.

민간교류협력의 안정적인 추진은 남북관계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육로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환율상승 등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민간교류협력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제1절 남북교역 및 투자

1. 남북교역

가. 개요

2008년 남북교역 규모는 환율상승·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일반 교역이 감소하고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및 위탁가공교역 등 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2007년 대비 1.2% 증가한 18억 2,03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상업적 거래의 평균증가율이 48%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2008.12.1)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역이 위축되었다. 교역규모를 반입·반출로 구분하여 보면, 반입은 9억 3,225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1.8% 증가했고, 반출은 8억 8,812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4.0%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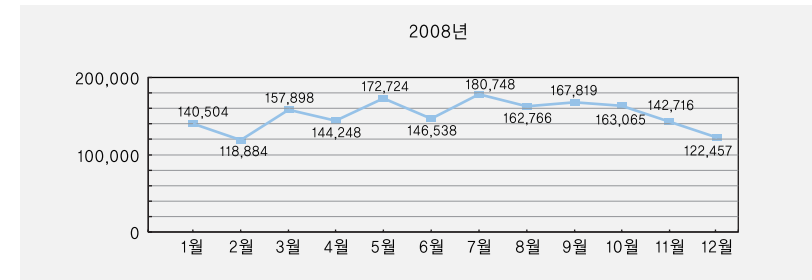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5,170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5,845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797	1,820	1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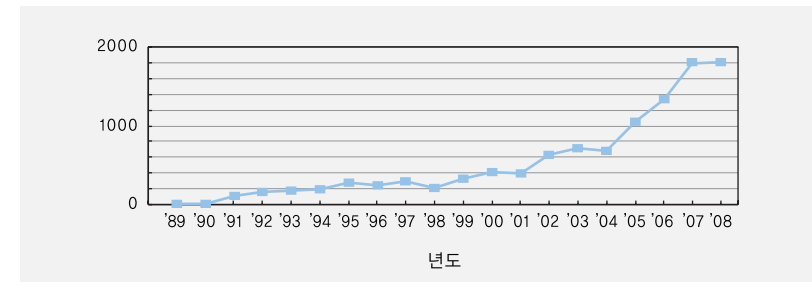
2008년도 월별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 달러)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나. 유형별 교역현황

2008년도 상업적 거래는 17억 1,187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9.6%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에서 94%를 차지해 남북교역이 상거래 위주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반입은 9억 3,219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1.8% 증가하였고, 반출도 7억 7,967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7.1%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 및 생산물 반입의 증가,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8억 844만 달러로 2007년 대비 83.5% 증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전기제품(21%)과 기계류(21.1%)의 반출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4억 83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3.8% 증가하였는데 이 중 섬유류의 위탁가공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깐마늘 등 농림수산물, TV·라디오카세트 등 전자·전기제품과 휴대용라이터 등 생활용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일반교역은 3억 9,943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3.4% 감소하였고, 경공업협력과 금강산관광 등 기타 경제협력 관련 교역은 9,568만 달러로 2007년 대비 51.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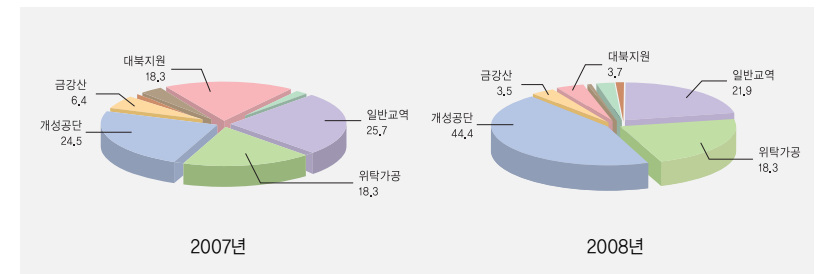
비상업적 거래는 1억 85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70.4%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6%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 관련 교역은 125만 달러로 2007년 대비 33.8% 증가하였으나, 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은 6,706만 달러로 2007년 대비 79.6% 감소하였다.

2008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구 분	상 업 적 거 래						비 상 업 적 거 래			합 계
	개성 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경제 협력	경공업 협력	대북 지원	6자회담 에너지 지원	사회문화 협력	
교역액 (천달러)	808,445	408,307	399,431	63,713	19,912	12,060	67,060	40,194	1,247	1,820,369
구성비 (%)	44.4	22.4	21.9	3.5	1.1	0.7	3.7	2.2	0.1	100

2007~2008년 거래 유형별 구성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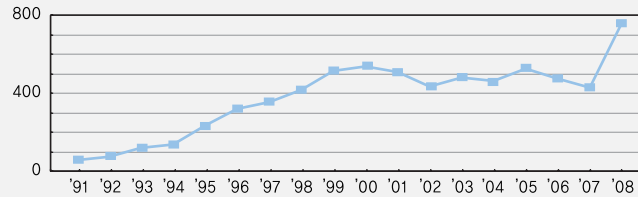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 교역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은 물품을 단순 반출입하는 일반교역에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제품을 재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하고, 이후 기계·설비 등을 투자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08년 남북교역은 일반교역 비중이 21.9%로 2007년 대비 3.8% 감소하고,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22.4%로 2007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특히 위탁가공교역 중에서도 신사복·여성정장 등 임가공 단가가 높은 품목이 증가하는 등 남북교역 구조가 단순 상품거래에서 위탁가공 교역으로 점차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간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1991년에는 56개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36개사, 2008년에는 760개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개성공단 관련업체(2007년 42개에서 2008년 193개)의 증가로 교역업체수가 전년 대비 80%나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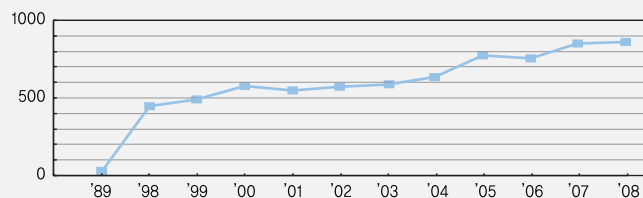
(단위 : 업체수)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78개, 2007년 853개, 2008년 859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체 품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순이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단위 :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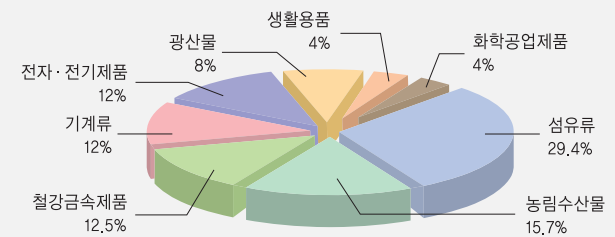


섬유제품은 2008년도 반출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29.4%(5억 3,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생산 및 위탁가공의 수주가 증가하고, 양복·코트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의 생산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전자·전기제품류(2억 2,000만 달러)는 TV·라디오·전선 및 소프트웨어의 위탁가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수산물(2억 9,000만 달러)과 광산물(1억 5,000만 달러) 반입은 고환율로 인한 수송비 및 반입물품 단가 상승 등으로 2007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품목별 교역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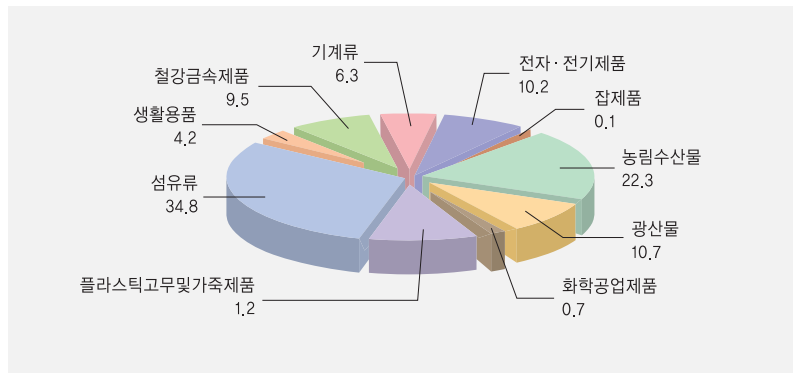
(단위 : %)



교역품목을 반입·반출 품목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2008년 반입품목의 비중은 섬유류(34.8%), 농림수산물(22.3%), 광산물(10.7%), 전자·전기제품(10.2%)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2008년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산 농림수산물과 무연탄 등 광산물도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교역 반입 품목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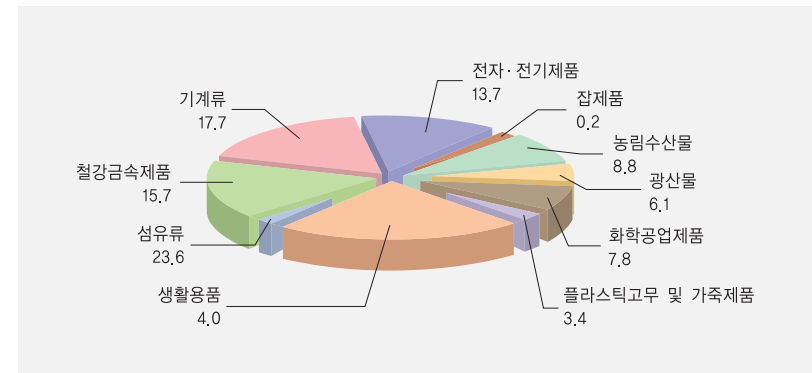
(단위 : %)



2008년 반출품목은 식물 등 섬유류(23.6%), 건설 중장비 등 기계류(17.7%), 철강금속제품(15.7%), 전자·전기제품(13.7%)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본격화와 함께 섬유류(원부자재)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개성공단 등 투자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건설자재 및 기계설비 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교역 반출 품목별 구성비

(단위 : %)



2. 남북 민간경제협력사업

남북간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 제외)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총 61건이 승인되어, 54건의 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취소되었다. 2008년에 신규로 사업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총 9건에 5,317만 달러로 2007년 5건, 1,785만달러에 비해 증가되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개성공단 인근지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분야도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신규 협력사업 승인 현황

업체명	승인 일자	사업 내용	승인액(만달러)
(주)아천	1.14	종합물류사업	570
(주)바두바투	2.4	주유소 운영	182.4
(주)독여로	2.25	참깨재배 및 참기름 가공	25
(주)파라다이스코리아	6.12	섬유제품 생산	1,270
(주)대동수산	6.20	수산물 가공	500
(주)아천	7.10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1,530
(주)남북경협	10.9	스포츠 의류 생산	500
(주)나우코퍼레이션	10.30	골판지 박스 생산	500
(주)G-한신	11.24	라면 공장	240
9개 업체			5,317.4

제2절 남북간 운송체계

1. 남북 화물열차 운행

2005년 12월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를 통해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

리회담 합의를 통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간에 남북 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화물열차는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정기적으로, 오전 9시에 우리측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하여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되었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하여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이 있는 화차만, 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였다.

그러나, 남북 화물열차는 북한의 12월 1일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총 222회(왕복 444회)를 운행하였으며, 화물 운송량은 총 17회 31량 55TEU를 기록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이며,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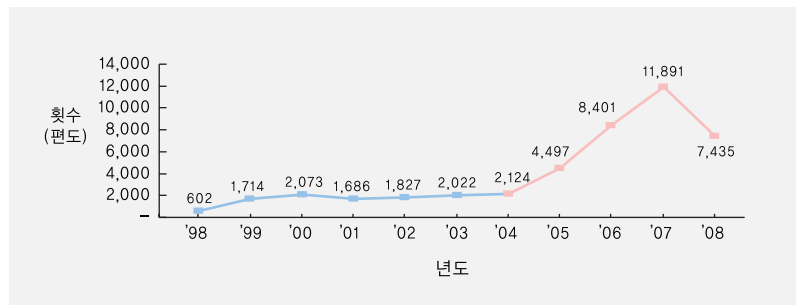
2. 해상운송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항과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홍남, 청진, 나진 등 7개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과 북의 국적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8.15를 계기로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남: 통일부, 북: 육해운성)은 전화 1회선과 FAX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설치하여, 1일 2회(오전, 오후)씩 정기적으로 통화하면서, 쌍방간 선박운항 허가, 각종 사고시 긴급통보 및 선박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남북한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7,435회로 전년 대비 37.5% 감소하였다. 우리측 선박은 해주모래의 반입 감소, 수산물 반입 및 대북지원물자 반출 감소로 전년 대비 38.5% 감소한 7,181회를 운항하였다. 북한 선박은 주로 무연탄 수송선박 및 2007년 5월부터 운항이 시작된 부산에서 나진간 북한 정기화물선 운항 증가로 2007년 대비 21.5% 증가한 254회를 운항하였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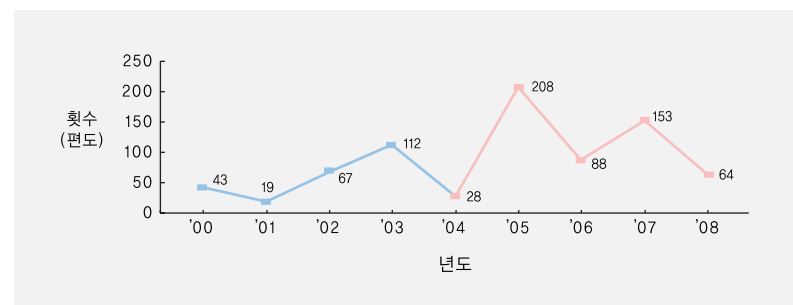
남북해운합의서 발효(2005.8) 이후 2008년 12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해역을 총 947회 운항하였으며, 이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514회, 우리측 해역(제주해협)을 통과해서 북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예: 서해 남포 ↔ 동해 청진)은 433회이다.

한편, 2008년 8월에는 북한 장전항 해상에서 우리 모래운반선(동이1호)과 북한 어선이 충돌하여 북한 어선 1척이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실종되는 해상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남북해운합의서 등에서 합의한데 따라 사고 사실을 상호 통보하고 손해배상 등 관련 사후 처리문제를 쌍방향 합의 하에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3.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서해를 우회하는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2008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고 민간 교류행사가 감소함에 따라 편도 기준 남북간 항공기 운항도 총 64회로 전년 대비 71.9%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적기의 이용 비율은 전년도(153회 중 53회)에서 43.8%(64회 중 28회)로 다소 상승하였다.

남북간 항공운항 현황



제3절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 통행 상황관리

개성공단사업은 2008년 3월 29일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중단한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2008.12.1)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은 「12.1 조치」를 통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면서 상시 체류인원 수를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횟수(1일 6회)와 일일 출입인원 및 차량(매 회당 인원 250명, 차량 150대)을 대폭 제한하였다. 동 조치 이전에는 매일 08:30부터 17:00까지 일일 18회의 출입경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기업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원부자재 및 상품 수송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도록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12월 26일에는 입주기업의 비상위험 상황을 담보하기 위해 경협보험 지급 총한도액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 주요내용

- 원부자재·생산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의 우선 통행 보장
 - 매일 첫 출경(09:00) 및 첫 입경시(15:00) 승용차 이용 금지
 - 서울 ~ 도라산 ~ 개성공단간 정기 셔틀버스 운행
- 출입경이 많은 월·금·토요일에는 입주기업과 건설업체를 구분하여 출입 시간대 설정, 출입경 인원 분산
 - 입주기업 : 월 09:00, 10:00 출경, 금 17:00, 토 15:00 입경
 - 건설업체 : 월 11:00 출경, 토 16:00 입경

2. 입주기업과 생산현황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간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를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수되고 2007년 12월말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사업 추진일지

일자	추진 내용
2000. 8.22	현대-北아태간 총 6,612만㎡ 개발합의서 체결
2002.11.20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27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2003.4-2006.11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2003. 6.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사업 추진일지

일자	추진 내용
2003. 8.20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2004. 1.29	「개성공단 · 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 '05.8.1 발효)
2004. 4.23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2004. 6.14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2004.10. 5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2004.10.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 8. 1	토공, 본단지 1차 16만 9천㎡ 분양 공고
2005.12. 5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2005.12.28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6. 6.29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2006.10.31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가동
2006.11.21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2007. 5.26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2007. 1.30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2007. 4.30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2007. 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9.30	총생산액 2억달러 달성
2007.12.3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2008. 7. 4	북한 근로자 3만명 고용
2008.11.30	총생산액 5억달러 달성
2008.12. 1	북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
2008.12.13	통일전망대 개성공단 제품 전용 상설전시관 개관
2008.12.23	제1차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완공

2008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시범단지 27개 기업과 본단지에 입주한 66개 기업 등 9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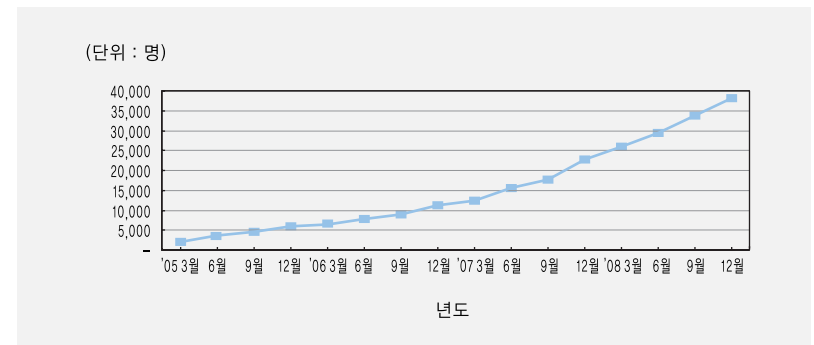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류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 · 봉제 · 의류, 가죽 · 가방 · 신발)	화 학	기계 · 금속	전기 · 전자	식품	종이 · 목재
계	93	56	4	22	8	2	1
시 범 단 지	27	(주)삼덕스타필드 (주)신원예벤에셀 문창기업(주)개성	(주)태성하타 (주)지에스	(주)로만손 개성공장 (주)로잔 개성공장 (주)현진 개성공장 (주)엔 · 아트 동일정공(주) 대선테크(주) (주)픽시스 (주)에버존 아라모드시계(주) 개성공장 (주)개성대화 소노코쿠진웨어(주) 개성신영(주) (주)조민P&P (주)대건산업 개성한샘(주) (주)호산에이스 (주)티에스피	개성부천공업(주) 솔루텍지에스(주) (주)제씨콤 개성공장 (주)개성마이크로 GS용민전자(주)		
본 단 지 1 차	14	성화개성(주) (주)좋은사람들 개성1공장 (주)진글라이더 개성코튼클럽(주) (주)명안 개성공장 (주)개성제일상품 (주)명화제화 (주)만선개성 (주)개성아트랑 (주)베스트프렌드개성 (주)서도 (주)녹색섬유개성 (주)에스엔지개성공장		케이엠에프개성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 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목재
본 단 지 1 차 (아파트형공장)	30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에버그린 (주)개성스킨넷 개성팀스포츠 (주)나인모드 가드뱅크 (주)엘고개성 (주)개성자수 제이패션 (주)아진개성 (주)개성쉬크베베 (주)진성산업 (주)드림에프개성 (주)동우 (주)개성창대어패럴 개성신한물산(주) (주)와이에스개성 (주)개성금담 (주)에스엔티스포츠 개성 (주)신한모드개성 (주)광일 (주)개성성림 웅피 (주)신즈개성 청송 뷔에세 (주)새서울자수 (주)에이치디글로벌 (주)국제실크유통개성 (주)동화개성					
본 단 지 2 차	22	(주)세일개성 (주)영이너폼개성 (주)창진어패럴 개성공장 (주)흥진개성 (주)나인제이아이티 (주)아이에스레포츠 (주)인디에프개성 (주)네오로드 (주)코베 (주)제이엔제이	(주)성림 (주)프레브	(주)에스디비개성 남광엔케이(주) 개성유니 (주)개성동우	(주)명진전자 개성자화전자(주) 경원전자(주)	(주)흥익 (주)한식품	개성 하이로

2008년에는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에 힘입어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2월에는 북한 근로자가 3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근로자 3만 9,000여 명과 우리측 근로자 1,0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 증가 추이(누계)



가동 중인 93개 입주업체의 총 투자액은 3,338억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35억 8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화학(91억원), 전기·전자(88억원), 종이·목재(40억원), 섬유(28억원), 기계·금속(26억원), 식품(25억원) 순이다.

입주기업 투자액

(단위: 억원)

업종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목재	계
업체 수	56개사	4개사	22개사	8개사	2개사	1개사	93개사
총투자금액	1,600	364	577	707	50	40	3,338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매일 1,200여 명의 인원과 7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해볼 때, 2008년 한해 생산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36%, 북한근로자 수는 3만 9,000여 명으로 72%, 가동기업 수는 93개로 43%가 증가했고, 이는 2005년 개성공단 본격 가동 이후의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생산 및 수출 실적

(단위 : 천 US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누계(2005~2008)
총생산액	14,906	73,737	184,779	251,422	524,844
수 출 액	866	19,825	39,669	35,845	96,205

개성공단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누적 총생산액도 2007년 1월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8년 2월말 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8년까지 누적 총생산액은 5억 2,484만 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섬유 2억 5,229만 달러, 기계·금속 1억 1,730만 달러, 전기·전자 1억 148만 달러, 화학 5,271만 달러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 실적

(단위 : 천 US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누계(2005~2008)
섬유	6,780	27,793	85,543	132,179	252,295
화학	1,768	10,900	18,262	21,785	52,715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117,300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101,488
식품	—	—	—	976	976
종이·목재	—	—	—	70	70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524,844

2008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해외수출액은 전년도보다 9.6% 감소한 3,584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 851만 달러, 기계·금속 2,460만 달러, 전기·전자 273만 달러였다. 이는 전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중국·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업종별 수출 실적

(단위 : 천 US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누계(2005~2008)
화학	538	4,974	10,342	8,510	24,364
기계·금속	328	12,855	23,967	24,598	61,748
전기·전자	—	1,996	5,360	2,737	10,093
계	866	19,825	39,669	35,845	96,205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2006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08년 12월 현재, 용수시설(1일 3만톤), 폐수처리시설(1일 1만5천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61,000㎡, 소각시설 1일 12톤) 등의 기반시설과 전력시설(10만 kW)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경

2008년 6월에는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집단에너지사업이 착공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설계완료 및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에는 종합지원센터 건축 2차 계약이 체결되고, 12월에는 제1차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되었다.



평화변전소



폐기물매립시설

아울러 한국통신(KT)은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2월에 기존 653회선의 통신시설을 700회선으로 증설하여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6월~7월 기간 중에 600회선의 추가 증설

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북한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본 단지에 대한 원활한 통신 공급을 위해 9,917.4m²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립하고, 인터넷·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국내환경과 동등한 수준의 통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형 공장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가. 법체계와 법·제도 정비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법·제도는 남북간 합의서, 남한 법규, 북한 법규가 함께 적용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남북간에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

역에 관한 합의서」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와 기타 남북간 합의서가 개성공단에 적용된다.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내법으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개성공단이 남북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단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에 확대 적용하였다.

북한의 법규는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등 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43개의 사업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 세금, 기업재정 등 하위규정의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협의가 남북간에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총 14회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나.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은 2008년 12월 현재 통일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정부 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한편, 기반시설 건설 지원, 협력사업 승인·조정, 기업 운영 관련 각종 제도 마련, 통행·통관 등의 출입제도 개선 및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술교육부, 협력부의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협의 채널로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주) 및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입주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협의체가 있다. 2008년 12월 현재 「입주기업대표자회의」, 「개성공단발전연구회」 등이 대표적인 정책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5. 기업 투자환경

가. 통행절차 개선 및 통관 간소화

공장 가동 기업 및 신축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통행량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5만 2,637명이 방문하고 차량 8만 5,626대가 개성공단을 통행하였다.

2008년도에는 남북간 상황으로 인해, 우리측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측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통행 간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8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여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성공단 방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방문신청 민원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8년 1월에는 관세청과 협의하여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1월에는 통일부와 관세청 전산시스템간 출입정보 연계를 통해 전자운행증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심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작업 심사에 필요한 차량 출발·도착 보고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였다.

통행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전자출입체계(RFID)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개성공단의 상시출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첩 형태의 방문증을 보안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방문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수속 시 심사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

빈번한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심사 시 자동심사를 위한 전자운행증이 발급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대부분의 차량에까지 전자운행증의 발급을 확대하여 자동심사 비율을 향상시켰으며, RFID 전자운행증 인식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여 세관업무의 효율도 높였다.

이러한 자동심사체계를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 인원·차량 방북 승인 시 전자증명서를 자동발급하고 민원인이 출입사무소 현장에서 전자증명서를 수령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출입편의를 제고하였다. 향후 우리측 출입심사에 활용되고 있는 전자출입체계가 북한 지역에도 시행되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통행 편의성은 중국의 홍콩-심천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그간 개성공단은 일반 수출입지역이 아닌 특수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우리측 통관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2008년 남북간 합의와는 별도로 입주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우리측 통관절차를 크게 개선하였다.

우선 2008년 1월에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통관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자 반출입신고를 기존의 전산신고와 서류제출 병행체제에서 일반 수출입과 같이 별도 서류제출 없는 전산신고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북한 개성지역에서 우리측 지역으로 돌아올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를 발급받아, 수시북한

방문증명서에 확인표를 부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전수검사 방식의 북한 통관절차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 직무교육 및 근로조건

입주기업은 북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에 인력 공급을 신청하고, 총국은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공급하고 있다. 기업은 총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기능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로 채용되는 북한 인력 및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기술교육센터는 22개의 강의 실습실, 대강당,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1일 동시 교육 가능인원은 약 700여명이며, 연간 4,000명의 기능 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가능하다.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과 종업원 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실시한다. 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북한의 명절과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150

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는 노임과 가급금,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였는데 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총국간 합의에 의하여 2007년 8월 1일 52.5달러로 인상되고, 2008년 8월 1일에는 55.125달러로 인상되었다.

기업들은 노동보수와 별개로 월 노임총액의 15%를 익월 10일까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월 노임액의 약 30% 정도를 사회문화복지기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물(생필품)과 북한 화폐로 지급받고 있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출퇴근 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근로자 공급 및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휴식시간 및 간

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샤워실·의료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금융지원 및 경험보험제도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말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원이 대출되었다. 2007년 12월부터는 기술보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8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 31개사에 대해 281억원(2008.12월 기준)을 지원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투자를 위해 국내 모기업을 차주로 하여 기금을 차입한 결과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개성공단 투자기업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대한 차주변경 신청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차주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손해보험과 유사한 경험보험제도는 기금과 기업간 손실보조약정 체결에 따라 시행되며, 약정금액은 기업 당 50억원 이내, 투자금액의 90% 이내에서 약정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2005년 7월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동 제도는 초기에는 가입업체가 많지 않았지만 2008년에 접어들면서 가입업체가 늘어 2008년 12월 기준, 94개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총 보험금액은 3,162억원에 이르고 있다.

라. 판로 지원

개성공단이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하고 입주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판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성공단 홍보관(2008.12.13 개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또한 정부는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전시회·판매전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섬유교역전」(2008.9.3~5, 코엑스), 「섬유의 날」(2008.11.12~13, 섬유·패션센터), 「부산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2008.11.20~22, 벡스코) 등 전시회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정부중앙청사 판매전」(2008.12.23~24) 개최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 및 개성공단 이미지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13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개관하였다. 이 전시관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본관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로만손, 삼덕통상, 나인모드, 제이패션 등 14개 업체가 생산한 시계, 신발, 의류, 덧신 등 각종 제품이 전시되어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연간 60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개성공단과 생산제품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개발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works」는 상표출원 중이므로 2010년 이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eaceworks」는 “평화를 심는 작업, 평화를 의미하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심볼마크는 뿌리 깊고 튼튼한 푸른 나무가 모여 풍요롭고 평화로운 숲을 이뤄 번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관계자와 각 국가의 투자가에 대한 기획방문을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까지 1,038명의 외국인 바이어와 투자가가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Peaceworks 브랜드 로고

6.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근로자의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200명 수용규모의 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8년 11월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소요예산 9억원을 확보하였다.

이 보육시설이 건립·운영되면 영유아 보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편의시설

2008년 12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우리측 근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21개 업체가 통일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13개 업종 21개 영업장에서 편의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편의시설 중에는 음식점이 가장 많아 구내식당 3곳, 한식당 1곳, 일식당 및 중식당 각각 1곳이 영업 중이며, 그 외 주요 편의시설로는 호텔, 은행,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도소매점, 차량정비소 등이 있다.